

# 이야기지도안

## 교육목표

**제목** 의원 허준

**나이** 어린이 (6~9세)

**주제** **목표** : 백성을 위해 '동의보감'을 쓴 의원 허준의 선행을 배운다.  
**주제** : 선행

**핵심어** 선행, 허준, 동의보감, 전염병, 천연두, 한의학

**한국문화** **목표** : 조선시대의 전염병에 대해 알고, 무서운 전염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요소** : 조선시대의 전염병 (천연두:마마)

**한국어** **목표** : 보조 형용사를 사용해 되고자 하는 마음과 하고자 하는 행동을 표현해 본다.  
**단어** : 싶다  
**표현** : 의원이 되고 싶다. 강아지를 돌봐주고 싶다.





##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000,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예요.



##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똑딱! ‘의원 허준’ 이야기예요.

여러분, 배가 아프면 어디에 가나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병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원을 찾아가 침을 맞거나 약초를 달인 한약을 먹고 병을 고치곤 했대요. 여러분 중에 몸이 아파서 한의원에 가 본 친구 있나요? 한의원에서 하는 치료의 방법은 ‘동의보감’이라는 책에 잘 정리되어 있어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바로 허준이랍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 볼까요?



##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의원 허준’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뽕뽕! ♪



##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조선시대 때, 아픈 이들을 진심으로 돌보고 병을 고쳐 준 의원 허준이 살았어요. 허준은 어려서부터 동물은 물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허준은 다리를 다쳐 길가에 쓰러져 있는 강아지를 보았어요.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허준은 망설이지 않고 강아지를 안고 집으로 왔지요.

“어머니, 강아지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수레에 치인 것인지…… 제가 돌봐주고 싶어요.”

어머니는 그런 허준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그래, 잘 보살피거라.”

허준은 강아지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어요. 가까운 동네 의원까지 찾아갔지요.

“의원님, 아픈 강아지에게 약을 좀 주세요.”



## 이야기 들려주기

의원이 그런 허준을 보며 껄껄 웃었지요.

“여기는 강아지가 아닌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란다.”

하지만 허준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사람이든 강아지든 모두 똑같은 생명이에요. 제발요! 약을 주세요!”

의원은 그런 허준이 꼭 맘에 들었어요.

“그 녀석 참! 좋다, 이 약초를 찌어 잘 발라 주거라.”

“정말 감사합니다!”

허준은 얼른 집으로 가 약초를 찌어 약을 만들었어요. 그러고는 날마다 강아지 다리에 발라 주었지요. 강아지 다리는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어요.

“어머니, 이제 강아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머니도 그런 허준을 뿌듯하게 쳐다봤지요.



## 이야기 들려주기

어머니도 그런 허준을 뿌듯하게 쳐다봤지요.

“준아, 다 네 정성으로 나온 거로구나. 장하다.”

허준은 그 후로도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음식과 약초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어머니께 말했지요.

“어머니, 저는 아픈 사람을 돕는 의원이 되고 싶어요.”

“의원이 되고 싶다고?”

어머니는 고된 일이라 생각해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꼭 의원이 되어야겠느냐?”

“네! 꼭 되고 싶어요.”

허준의 진심을 어머니도 더는 말릴 수가 없었지요.

허준은 의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사람의 병을 잘 고치기로 이름 난 의원들을 찾아가 직접 배우기도 했지요. 날마다 노력한 허준은 드디어 의원 시험에 합격했지요.



## 이야기 들려주기

“어머니! 저도 이제 의원이 되었어요!”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어머니도 마음껏 기뻐해 주었지요.

의원이 된 허준은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런 허준의 마음을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결국 임금님이 사는 궁궐에서 일하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이 궁궐의 의원들을 급하게 불렀어요.

“왕자가 많이 아프구나. 이 병을 누가 고칠 수 있겠느냐?”

둘째 왕자는 온몸에 빨간 물집이 잡히고 열이 심하게 났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옮길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천연두란 큰 병이었지요. 모두들 꺼리며 선뜻 나서는 의원이 없었어요. 왕자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의원이 큰 벌을 받을 게 뻔했거든요.

다들 망설이는 사이, 허준이 앞으로 나갔어요.

“제가 꼭 왕자님을 고쳐 보겠습니다.”



## 이야기 들려주기

임금님은 그런 허준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래, 꼭 고치도록 하거라.”

허준은 그날부터 밤낮으로 왕자 곁을 지키며 보살폈어요. 좋은 약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날마다 먹였지요. 열을 내리기 위해 쉬지 않고 왕자의 몸을 수건으로 닦았어요. 또 왕자가 잘 때도 지켜보며 괜찮은지 기록했지요. 이런 허준의 노력 끝에 왕자의 몸은 점점 나아졌어요. 열은 내리고, 빨간 물집들도 조금씩 없어졌지요.

“몸이 한결 가볍구나. 이제 아프지도 않고.”

왕자는 환한 얼굴로 허준에게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옵소서.”

허준은 왕자의 병이 깨끗하게 다 나을 때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왕자도 그런 허준의 마음을 알고 허준이 하라는 대로 따랐지요.

“허허허, 왕자의 병이 씻은 듯이 다 나았구나.”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허준을 칭찬했어요.



## 이야기 들려주기

“네가 왕자를 살렸어! 고맙구나!”

임금님은 그 후로 허준에게 큰 벼슬을 내리고 늘 가까이에 두었어요. 하지만 허준은 궁궐의 일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을 돌보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내가 백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직접 다 돌보지 않아도 말이야.’

허준은 고민한 끝에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록하기로 했어요. 아픈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상세히 남기기로 말이지요. 환자를 대하듯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 한 자, 한 자 적어 내려갔어요. 오랜 시간 걸려 쓴 이 책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널리 알려진 ‘동의보감’입니다.



###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어린 허준은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나요?

그래요. 아픈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원이 되고 싶었어요. 허준은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착한 아이였어요. 다친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와 치료해 주기도 했지요. 여러분은 무엇이 되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고 싶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한번 말해 보아요.

허준은 임금님이 사는 궁궐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둘째 왕자가 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에 걸렸나요?

네, 천연두라는 무서운 전염병이에요. 이 병은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도 있어, 모두가 꺼리는 병이었어요. 허준은 좋은 약도 지어주고, 왕자의 몸을 닦아 주며, 정성껏 치료해 주었지요. 이처럼 무서운 전염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친구들도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조선시대의 무서운 전염병인 '천연두'가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할머니와 ‘의원 허준’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허준은 어릴 때부터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강아지를 치료한 후, 의원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 후 궁궐의 의원이 되어 왕자의 병도 고쳐주고, 아픈 백성들이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동의보감’ 책도 썼어요.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아플 때,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줄 수 있지요?



##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뽕뽕!♪



##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